

‘포스트코로나시대’ 선제적 대응하는 순천시 일자리 정책

고령화 심각 지역 귀농귀촌 청·장년 정착 지원
주민 불편해소 ‘맥가이버 양성사업’ 올해 시작
순천대·청암대와 만화문화산업 협력체계 구축
웹툰산업 추세 발맞추어 인재 육성 비전 공유
내달까지 순천 대표 글로벌 크리에이터 양성
‘창업연당’ 통해 자격취득과정 프로그램 운영도



순천시는 지난 6월 순천글로벌웹툰센터 열림식에 이어, 8월 순천대학교, 청암대학교와 함께 지역 만화문화산업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지역 만화문화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업무협약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웹툰산업 추세에 발맞추어 웹툰창의 인재 육성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콘텐츠 분야 미래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호협력 의지를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순천시는 웹툰 모바일앱 사용자의 60% 이상이 1020세대임을 반영하여 관심있는 청년 인재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콘텐츠 창의기업들이 정착하는 웹툰 특화거리를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순천글로벌웹툰센터는 웹툰 창의도시 브랜딩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동시에 ‘지역만화산업 균형발전 세미나’, ‘지역만화기업 육성 전략 심포지엄’ 등 지역 만화문화산업 생태계 기반 고도화를 위한 관·학 연계 사업을 2021년부터 유지하여 호남권 웹툰 거점센터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올해 1월 문을 연 순천글로벌웹툰센터에는 기업 3개사, 작가 12팀이 입주해 있다. 기성작가들은 연재 및 신작 준비, 예비작가는 등단을 위한 공모사업 응모에 전념하며, 입주기업들은 지역 특화스토리 발굴 및 웹툰 IP콘텐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웹툰 창·제작 지원 사업 5편이 완료되었으며, 신규 작품 1편이 네이버에 연재되었고 또 다른 작품은 11월 연재를 앞두고 있으며, 글로벌 입주기업 IIE STAR KOREA는 코로나 극복을 주제로 ‘오공배’한중일 국제만화공모전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순천글로벌웹툰센터는 2021년 핵심목표로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S)순천-만화 브랜드 구축을 슬로건으로 정하고, 순천이 갖고있는 지역의 자원과 장점을 살려 웹툰센터를 중심으로 아마추어 크리에이터 파파·순천웹툰 페스티벌·플리마켓 등 웹툰 테마광장 문화제를 펼쳐 나갈으로써, 본격적인 웹툰 특화거리 밀집을 다진다는 각오다.

▶ 세계시장을 무대로! ‘글로벌 크리에이터’ 양성교육 추진

순천시는 순천을 대표할 ‘글로벌 크리에이터’양성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11월까지 동영상 콘텐츠 제작 교육을 실시한다.

글로벌 크리에이터는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창작한 사진이나 영상 등을 통해 세계시장을 무대로 활동하는 창작자로, 시공간의 제약없이 기본적인 디지털 장비만으로도 수익창출이 가능한 디지털노마드의 대표적인 일자리 형태이다.

교육기간은 9일부터 오는 11월 27일까지 총 20회로 진행되며, 이론 20시간과 실습 12시간 총 3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내용은 영상촬영 및 편집기술, 수익모델 변화과정 사례공유 및 비전 제시, 크리에이터의 생계와 수익구조 등이며 초보 크리에이터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모든 교육과정은 비대면 온라인 라이브 강의로 진행된다.

나날이 활성화되는 콘텐츠 유통시장에 적합한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순천시에서도 세계시장을 무대로 활동하는 글로벌 인재가 양성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 언택트 시대! 순천시, 비대면 프로그램 창업지원 활성화모범

순천시는 창업지원센터인 ‘창업연당’에서 창업 교육과 PMP(Project Manager Professional)국제공인자격증을 접목시킨 자격취득과정 프로그램을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했다.

PMP(국제공인 프로젝트관리 전문가) 자격취득 지원과정은 전문가를 양성하고 업무 영역별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목적으로, 일반 직장인의 경우 업무 프로세스를 체계화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창업자들에게는 창업 프로세스를 프로젝트 관리 형태로 접목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순천시는 창업과 프로젝트 관리를 접목한 것은 순천시 ‘창업연당’이 첫 사례라고 밝히며,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이 직장인과 창업자들에게 자기계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취업·창업에 연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순천시는 청년센터에서 미취업 청년에게 면접복장을 대여해 주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꿈정의상실’을 운영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에 대응해 취업취약계층과 생계지원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일자리사업 등 직접고용 사업과 고용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각종 교육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허 석 순천시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자리는 비대면·바이오·ICT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아이디어 하나로 성공할 수 있고, 일거리 좋고 일자리 많은 행복한 생태경제 도시 순천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지역에는 젊은 활기를 불어 넣는다

순천시는 고령화가 심각한 읍면지역에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청·장년의 정착을 지원해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생활불편사항 해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맥가이버 양성사업’을 올해 시작하였다.

지난 5월 월등면, 별량면, 사사면, 해동면, 서면에 5명의 맥가이버를 위촉하여 해당 지역의 공작소에 거주하며 8월까지 약 4개월간 458건의 농촌마을 어르신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해 주었다.

이와 더불어 읍면지역 취약계층 가구와 마을 공동이용 장소 등에 디딤돌(발판)을 설치하여 주민 복지 향상에도 힘을 예정하며, 추가적으로 황전면에 맥가이버 1명을 더 배치하는 등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편, 순천시에서 위촉된 맥가이버에게 읍·면 지역 빈집을 리모델링해 만든 공작소를 5년간 무상제공하며, 8개월간 정착지원금을 지원해 농촌지역에 청년들의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콘텐츠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콘텐츠 산업 리쇼어링 프로젝트’사업도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리쇼어링 프로젝트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2D/3D 애니메이션 콘텐츠 기업 및 웹툰 기업을 순천시에 유치해 전문 애니메이터와 웹툰 작가들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13개 기업 100명의 청년 근로자가 선발되어 순천시 콘텐츠 산업 활성화의 초석을 마련하였고, 7월에는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사업비가 약 7억이 증액되어, 8개 기업 77명의 청년근로자가 추가로 선발되어 총 21개 기업에서 청년 165명이 근무하고 있다.

리쇼어링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는 21개 기업 중 수도권 및 전남권 소재 17개의 콘텐츠 기업을 순천에 유치하였고, 청년 근로자 141명이 순천시로 전입하는 등 지식정보문화산업 일자리 확대와 경제활동 인구 증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웹툰 전문 플랫폼 미스터블루의 자회사인 블루코믹스가 순천으로 본사를 이전해 본 사업에 참여하여 청년근로자와 상주 관리인원 등 14명이 순천으로 전입하는 등 문화콘텐츠 산업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만화인재 순천으로’ 웹툰 창의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 다져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장평 13길 19	(061) 727-3123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겉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국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